

01

한국오리협회 나주시지부 개소

한국오리협회 나주시지부(지부장 전영욱)는 지난 1월 19일(화) 나주시 왕곡면 영산포로 41 나주축협 동물병원 부지내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이날 11시 개소식을 가졌다.

02

2016 외부회계감사 실시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월 14일(목) 본회 사무실에서 외부회계감사인 삼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했다.

03

2016년 제1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 개최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월 13일(화) 대전 서구 관저동 오리식당에서 ‘2016년 제1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 및 해외 AI 발생현황을 짚어보고 차단방역 노력을 당부했으며, 2015년 자조금 납부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미납 자조금 거출을 독려했다. 또한 도압장 도축검사 공영제 시행관련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근 오리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고 오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종오리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참석자 전원 동의했다.

04

한국오리협회 2015년도 결산 감사 실시



한국오리협회 안정제, 민종환 감사가 지난 1월 27일(수) 오전 10시 협회 사무실에서 한국오리협회 2015년도 결산 감사를 실시했다.

05

2016년 제1회 한국오리협회 이사회 개최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2016 제1회 한국오리협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회(2015년 제5회 이사회) 의사경과를 접수하였고, △2015년도 협회 주요업무 추진사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2015년도 협회 감사(자체감사, 외부회계감사)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계획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어 △2015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지출예산(안)의 예비비가 적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일반회계 전체 지출예산(안)의 약 10%로 예비비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기타 논의된 사항으로는 'F1오리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이 시급하며,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사회는 사조오양의 훈제오리 수입 및 유통 사건과 관련한 논의 끝에 △인터넷 판매 등 판매행위 즉각 중단 △보유재고 즉시 수거, 오리협회 입회하에 전량 폐기 △사조 그룹차원 재발방지 공식약속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회의 종료 후 즉시 사조오양 측에 위 사항을 통보했으며, 1월 29일까지 답변이 없을시 2월 2일부터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것을 경고했다.